

보도 일시	2022. 9. 22.(목) 11:00 9. 23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9. 22.(목) 09:00
담당 부서	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	책임자	과 장 조경규 (054-912-0150)
		담당자	사무관 조정영 (054-912-0151)

## 국립종자원, 아시아 14개국에 종자 검정 기술 전수

- 2022년도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추진 -

국립종자원(원장 김기훈)은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업부처 종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『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』를 실시한다.

우리나라의 보급종 종자 생산·공급 제도 및 종자 검정 기술을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베트남, 캄보디아를 비롯한 14개국\* 14명이 연수에 참가한다.

\* 방글라데시, 캄보디아, 인도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파키스탄, 필리핀, 스리랑카, 태국,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

본 연수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20개국 149명이 연수를 이수하였다.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'20년은 연수 취소, '21년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다.

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초청 연수로 ▲한국의 종자산업 정책, ▲정부 보급종 생산 및 공급체계, ▲품종보호 제도 및 심사 기술, ▲종자검정 기술, ▲민간기업의 종자 육종 및 생산시설 견학, ▲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하였다.

또한 10월에 개최되는 『한국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(UPOV) 2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』에서는 연수 참가국의 종자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종자업체의 수출 확대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“본 연수사업이 아시아 개도국의 보급종 생산체계 선진화 및 종자검정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, 한국 종자업체의 아시아 지역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2022년도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개요



## □ 추진 목적

-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종자산업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연수를 통해 참가국의 종자 제도·기술 선진화 도모(ODA사업)

## □ 추진 경과

- `08년부터 매년 초청 연수 13회 개최(20개국 149명 참여)
- \* 코로나-19 확산으로 '20년도는 연수 취소, '21년도는 온라인 연수 추진

## □ 2022년도 연수 개요

- 연수 대상 : 14개국\* 14명
  - \* 방글라데시, 인도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파키스탄, 필리핀, 라오스, 스리랑카, 태국,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
- 연수 일정 : 9.25(일) ~ 10.8(토), 2주간
- 연수 장소 :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및 종자산업 현장
- 연수 방식 : 초청 연수

## □ 주요 연수 내용

- (강의) 한국의 종자산업, 보급종 생산·공급 및 품종보호 제도 등
- (실습) 종자순도, 발아, 종자병 검정 및 유전자분석 등
- (국별보고) 연수 참가 국가별 종자산업 현황 발표·토의, 액션플랜 작성
- (현장시찰)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, 종자업체, 보급종 정선시설 등
- (심포지엄) 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별 대표로 참석

### \* UPOV 가입 20주년 심포지엄

- (일자) 10.6 (장소)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(31F) (참석) 종자관련 민·관·학 220여명

- (문화체험) 전주 한옥마을, 경복궁, 청와대 등 K-culture 체험